

KSPM-76

지역사회 성인들의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률, 치료 순응률, 조절률

Prevalence, therapeutic compliance and control rate of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in an adult population

양진훈¹⁾, 박의현²⁾, 김보완³⁾, 채성철²⁾, 감 신¹⁾, 하승우³⁾, 김정국³⁾, 이경수⁴⁾, 이중정⁵⁾, 임부돌⁶⁾, 김종연⁷⁾, 임지선¹⁾, 진수희⁶⁾, 윤희정⁶⁾, 천병렬¹⁾

(1)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경북대학교 심혈관 연구소, (3)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학교실, (4)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5)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6) 경북대학교 건강증진 연구소, (7)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고혈압과 당뇨병은 유병률이 높고, 여러 만성질환들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위험인자일 뿐 아니라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보건문제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이 얼마나 치료에 순응하고 있으며, 혈압 및 혈당을 잘 조절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지역의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률과 치료 순응률, 조절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방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9개 보건진료소 관할지역을 리 단위로 집락 추출하여 조사지역을 선정하여 1,806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혈압은 5분의 휴식 후 수은주 혈압계를 사용하여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측정하였다. 2회 측정치의 평균을 이용하여 JNC(Joint National Committee) 7차 보고서의 기준에 따라 고혈압, 고혈압 전단계의 여부를 판정하였다. 공복혈당과 포도당 75g 부하 2시간 후에 측정된 혈당을 이용하여 공복혈당 장애, 내당능 장애, 당뇨병의 여부를 판정하였다.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연령이 30세 이상, 70세 미만인 1,4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 40.4%, 여자 38.4%였고, 고혈압 전단계의 비율은 남자 40.3%, 여자 33.0%였으며 고혈압 전단계와 고혈압을 모두 포함한 유병률은 남자 80.7%, 여자 71.4%였다. 고혈압 환자 중은 신환비율은 남자 65.8%, 여자 52.9%였다. 고혈압 구환과 신환을 합친 전체 고혈압 환자 중 고혈압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치료순응률은 남자 18.9%, 여자 32.6%였고, 수축기 혈압이 140mmHg 미만, 그리고 이완기혈압이 90mmHg 미만으로 조절되고 있는 혈압 조절률은 남자 5.9%, 여자 8.7%였다.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 11.8%, 여자 10.4%, 공복혈당 장애 유병률은 남자 4.4%, 여자 3.2%, 내당능 장애 유병률은 남자 4.2%, 여자 5.1%로, 공복혈당 및 내당능 장애와 당뇨병을 모두 포함한 유병률은 남자 33.5%, 여자 20.5%였다. 당뇨병 환자 중 당뇨병 신환비율은 남자 41.5%, 여자 29.0%였다. 당뇨병 구환과 신환을 합친 전체 당뇨병 환자 중 당뇨병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치료순응률은 남자 38.5%, 여자 47.3%였고, 공복혈당이 126mg/dL 미만으로 조절된 혈당 조절률은 남녀 공히 21.5% 였으며, 공복혈당이 110mg/dL 미만인 혈당조절률은 남자 16.9%, 여자 11.8%였다

결론: 고혈압유병률은 남자 40.4%, 여자 38.4%, 당뇨병유병률은 남자 11.8%, 여자 10.4%였다. 고혈압환자 중 신환비율은 남자 65.8%, 여자 52.9%였고, 치료순응률은 남자 18.9%, 여자 32.6%, 혈압조절률은 남자 5.9%, 여자 8.7%였다. 당뇨병환자 중 신환비율은 남자 41.5%, 여자 29.0%였고, 치료순응률은 남자 38.5%, 여자 47.3%였으며 혈당조절률(공복혈당 126mg/dL 미만)은 남녀 모두 21.5%였고, 110mg/dL 미만은 남자 16.9%, 여자 11.8%였다.

KSPM-93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System of Oriental Medicine Boardmanship

문옥륜¹⁾, 윤채현¹⁾, 박형준²⁾, 김동식²⁾, 김진희²⁾, 조찬호¹⁾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교실

목적: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전문의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과 전문의 인력수급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의학계와 기존 8개 전문과목의 현황조사를 병행하여, 한방 전문과목 추가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고 한의사 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설문조사의 대상은 전문의, 수련의, 개원일반의집단으로 한의사전문의는 320명을 조사하였으며, 수련병원(전속지도전문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조사되거나 개원전문의는 개원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발송한 우편설문을 통해 조사되었다. 수련의의 경우에는 수도권(8)과 전주(1)에 소재한 9곳의 수련병원에서 250명의 수련의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개원(일반)의는 한의사협회 개원의 명부에서 난수표를 이용하여 580명을 무작위 추출한 뒤 우편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한의학계와 한의사전문의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 및 8개 한방전문과목학회를 대상으로 질의공문을 발송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 전체 조사대상 1,150명 중 응답자는 전문의 105명, 수련의 227명, 개원일반의 148명이 응답하였다(총 480명, 응답률 41.7%). 한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80%가 찬성하였으며,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전문의제도가 전문화된 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답하였다(각 75%, 87%). 한의사전문의가 과잉배출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6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통합적 한의학과 분할적 전문의제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77%가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문과목 추가신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8%만이 찬성하여 반대의견이 더 큰 반면, 개원일반의의 경우에는 찬성(54%)이 더 많이 응답되어서 개원일반의들이 전문과목 추가신설에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 한의사 대비 적정 전문의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37%가 10-20%가 적정하다고 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추나과와 예방한의학과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문과목 신설평가기준에 의해 각각 54점, 88점(만점:100)으로 나타났다.

결론: 설문조사의 결과, 다수의 한의사들이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확대,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과목 추가신설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이 있으며, 학문적 현황과 교육 여건에 대한 조사결과, 추나과와 예방한의학과가 신설 요건을 만족하여 전문과목으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외에도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는 노령한의학과(가칭)를 한방의료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중풍의학중심의 한방응급의학과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나, 아직 정식 학회가 발족되지 못하여 현재로서는 신설을 논의할 수 없었다. 또한, 앞으로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의사 전문의제도처럼 개업을 위한 표방 수단으로써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KSPM-106

우리나라 일부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의약품 광고의 근거에 대한 평가

Quality of the pharmaceutical advertisement claims in five Korean medical journals

안성복¹⁾, 하경수¹⁾, 최원²⁾, 김현창¹⁾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한국 엠에스디 의학부

Objectiv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quality and evidence of pharmaceutical advertisements in medical journals. However, the medical review process of pharmaceutical advertisement is not fully developed in Korea. We conducted this study to assess whether the pharmaceutical advertisement claims in Korean medical journals had relevant references, and whether the claims were supported by the references.

Methods: We reviewed all advertisements promoting pharmaceutical products in five Korean medical journals (The Korean Circulation Journal,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Korean Academy Journal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docrinology, The Journal of The Korean Rheumatism Association) issued in the first half of 1999 and in the first half of 2004. Three investigators independently reviewed the advertisements to see whether the studies quoted to endorse the advertising messages supported the corresponding claims.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 investigated which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the advertisement claims.

Results: From the 550 advertisements in the five journals, we identified 157 different advertisements and 475 different promotional claims. Only 149 claims (62 in 1999 and 87 in 2004) had at least one reference, and 105 claims (38 in 1999 and 67 in 2004) had references of published article. We could find supporting evidences in the 90 claims (29 in 1999 and 61 in 2004). Three claims were not supported by the published references, and 12 claims could not be assessed because of non-standardized and incorrect citation. The factors which were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advertisement claims were drug category, claim category, and the manufacturer characteristics. Claims for cardiovascular and endocrine drugs (vs. respiratory drugs), and claims on efficacy (vs.

convenience, cost and others), and claims of multinational company (vs. domestic company) were more evidence-based. Publication time was not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the advertisements.

Conclusions: Majority of the pharmaceutical advertisement claims in Korea did not have appropriate references, and no significant improvement was observed in the past 5 years. Drug category, claim category, and the manufacturer characteristics were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advertisement claims, and the manufacturer characteristics w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Guidelines for medical advertisements and standard formats for citation are needed.

KSPM-122

대학 신입생들의 입학 전 2개월간 안전사고 발생 실태

Safety Accidents Status of Freshmen for 2 Months before Entrance University

민영선¹⁾, 임현술¹⁾, 이관¹⁾

(1)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국내에서 2003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65.3명으로 사망 순위 3위이고, 1세에서 39세까지의 사망 원인에서는 1위이다. 그러므로 청년층의 사고 원인과 예방을 위한 보건 교육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일개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전 안전사고 발생 실태를 조사하였다.

방법: 2004년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학교 보건소를 방문한 신입생 1,982명을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입학 전 2개월 동안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미완성된 설문지를 제출한 62명을 제외하고 1,920명을 최종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안전사고는 일상생활 중 자신이나 타인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정의하였다. 성별, 출신 지역, 졸업 후 입학할 때까지 기간과 안전사고 여부에 대하여 chi-square 분석을 실시하여 p<0.05를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985명(51.3%), 여자 935명(48.7%)이었다. 입학 전 2개월 동안 안전사고는 38명이 발생하여 100명당 발생자는 1.98명이었다. 남자는 28명이 발생하여 100명당 2.84명, 여자는 10명이 발생하여 100명당 1.07명으로 교차비는 2.71(95% CI; 1.31-5.60)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사고를 당한 상황은 일상적 행동을 하던 중 13명(36.1%), 스포츠 활동 시 10명(27.8%), 교통사고 8명(22.2%)의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골목 및 도로가 17명(47.2%), 운동장이 13명(36.1%), 집에서 4명(11.1%), 작업장이 2명(5.6%)의 순이었다. 손상 기전으로는 물건,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가 18명(47.3%), 넘어진 경우가 14명(36.8%), 추락 7명(13.2%)의 순이었다. 손상 종류는 염좌가 13명(36.1%), 타박상이 7명(19.4%), 열상이 6명(16.7%)의 순이었다. 사고의 원인으로서는 자신의 부주의가 23명(63.9%)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발생 후 병의원을 방문한 경우는 28명(73.7%), 그 중에서 입원을 한 경우는 7명(18.4%), 수술은 3명(7.9%)이 받았다.